



9면

국내 최대 목재 활용 목재문화체험장 들어서다

전주매일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윤 4월 21일) 제25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1일 고창군 상하농원 피머스빌리지에서 2020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제4차 정기총회 및 행복정책아카데미가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행복정책 실현”

공동선언문 선포식... 국민총행복위 구성 등 목적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차원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행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재원 확충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하 협의회)는 11일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전주시, 고창군, 공주시, 광주, 광안구, 대전 대덕구, 부여군,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수원시, 안양시, 여주시, 완주군, 이천시, 인천 서구 등 15개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3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에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검증됐음에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따르는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협의회는 국민총행복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지방분권 및 자치 확대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수장과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책을 국민총행복 관점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복정책의 수립·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특임장관(행복부)을 신설하고 국민총행복 증진과 행복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

충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선포식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코로나19와 주민행복, 지방정부 대응’을 주제로 집담회를 가졌다. 또 회원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담당 실무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인 ‘행복정책 아카데미’를 갖는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필수적이고도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회원도시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집중호우 대비 주요 수리시설물 사전점검

전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사전대비,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자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주요 수리시설물 2,931개소(저수지 2,201, 배수장 77, 방조제 30, 하구둑 1, 취입보 622) 및 공사현장 151개소(배수개선 16, 농촌용수개발 10, 수리시설개보수 88, 한밭대비용수개발 4,

새만금사업 16, 방조제개보수 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6)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 등 도내 주요 수리시설물 2,93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정상 작동여부, 손괴 여부 등을 집중 점검완료, 배수개선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

‘VR 창의체험’ 집에서 즐기세요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상상놀이터’에 추가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유호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미술, 인형극 요리 등 ‘온라인 상상놀이터’에 VR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홈페이지(http://www.jchild.kr/)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VR 창의놀이터’에 체험관 내 VR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를 추가했다. VR체험프로그램은 ‘바운티코스터’와 ‘캐리비안코스터’ 등 5종 체험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신개념 놀이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4차산업의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VR/AR 기반의 4차산업 체험공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창의체험관 휴관으로 체험관에서 VR/AR 프로그램을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웹과 모바일에서 VR/AR

체험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음악놀이터’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음악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온라인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기간 동안 3개의 신규 체험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재개관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월 1일 신속하게 임시휴관, 벽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증진하는 3개 체험시설 및 야외 동화속 꽃길 등을 추가 조성, 야외놀이터 1일 1회 소독, 열화상 카메라 설치, 2m 거리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코로나19에 따른 체험관 이용수칙 수립 등 재개관 시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장수~무주~인천공항 전북도, 버스 노선 신설

동부권 주민 이용편의 증진

장수~무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1일 장수터미널에서 장계터미널을 거쳐 무주터미널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T1, T2)으로 이어지는 장수~무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 향후 전북고속(2회)과 금남고속(2회) 2개 운송업체가 1일 4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급감한 상태여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변에 신선회 노선 운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도는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 불편 해소와 태권도원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공항 노선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인천공항 노선 인가 추진과정에서 관련

도 부동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한 전북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장수~무주~인천공항 노선(1일 4회) 조정이 최종 결정됐다.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수, 무주에서의 인천공항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되고, 무주 태권도원 및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 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급감했으나 향후 상황이 안정되면 금번 노선 신설로 인하여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일반 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